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는 제조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이따금 어려운 고비가 있었으나 조심조심 다져가며 착실하게 일한 덕으로 가정과 일터의 모든 사람들이 큰 근심 없이 지낼 만 했습니다.

그런데 87년 6.29선언이 던져진 뒤부터 회사의 분위기도 이전 같지 않았고, 노조가 결성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의 말투와 행동이 이전 같지 않은가 하면 그들의 요구 또한 엉뚱할 때가 많았습니다. 전에는 경영만을 생각하며 회사 식구들의 복지를 생각했는데 요즘은 야릇한 눈치를 보게 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 나라 이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민주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이라면 겪어야 하겠지만 사실은 심기가 적잖이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와서 수출 실적은 형편없이 떨어지고 화염병과 쇠루탄은 다시 이 땅을 어지럽게 만들며 온갖 갈등이 머리를 치켜드는 이 양상에 하루하루 근심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근심 중에 있는 어느 날,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교육관을 마련해야 할 일일 생겨 현금 문제를 아내와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쓰려고 1천만 원을 꽁꽁 뭉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여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데 이것 가지고 될까요? 우리 형편이 요즘 어렵기는 하지만 한 2천만 원 드려야 될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 꽁꽁 뭉쳐 두었던 천만 원도 아쉽기만 한 요즈음입니다.. 하루 종일 회사 일이 걱정되어 근심을 가지고 다니다가 최근하던 길에 자동차를 운전하며 주님께 말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저희 회사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문득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실로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답답하고 무겁던 가슴이 밝고 후련해졌습니다. “그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다. 천만 원은 예정대로 드리고 천만 원은 작정 현금을 하자.” 내가 아내에게 그 뜻을 전하자 아내도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 날밤,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잊어버렸던 어느 채무자로부터 참으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이제 빚진 돈을 갚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두 손을 부여잡고 큰 소리로 웃었지만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 반포동 S.I -

교회 목표 생명의 예수 삶의 기쁨	'이천년 교회생활: "주일에서 매일 중심신앙" 갈보리교회 <i>Calvary Presbyterian Church</i>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 2권 16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0년 4월 16일 ☎ 262-3717/021-292-1639. ☐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십일조를 다른 교회에 내면 안됩니까?

Q) 저는 대형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 날 농촌 미자립 교회에 관한 소식을 듣고 다른 명목의 현금은 제외하고 십일조 만은 농촌교회에 보내고 싶습니다.

A) 농촌 미자립교회의 딱한 사정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있는 것보다 농어촌 미자립 교회의 현실이 충격적이고 비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정을 아시고 십일조를 다른 교회에 보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꼭 가난한 교회를 돋고 싶다면 선교현금을 그런 교회로 보내시고 십일조를 본 교회에다가 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교회가 교회를 돋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령, 나는 목회자인데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매달 십일조를 받는다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받을 때마다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는 보내는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두 번째는 보내주는 그 사람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눈치를 보게 되고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또 액수가 커지고 일이 커질수록 감사의 대상이 확대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교회가 교회를 돋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GNP는 상승되었지만 농어촌 교회 현실은 어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돋고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선교 운동에 교회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 비판을 받는 것이 자기 교회만을 키운다고 하는 것이니 만큼 어려운 교회를 돋는다든지, 선교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er

용서의 선언
Proclaim

*찬 송
Hymn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기 도
Prayer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주 일 학 교
Sunday School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설 교 후 기 도
Prayer

특 송
Special Song

찬 송
Hymn

*현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응 답 송
Response Song

*위 턱 의 말 쯤
Benediction

"Calvary"
1절:예배반주. 1.3절:다같이

그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23 장

59 (고난주간)

사도신경

135 장

마태복음 21:1-11

'나 주 위해 살리라' -김두원-

십자가의 행진

'거룩한 성' -S.Adams-

147 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좋은신 하나님"

다 같 이

인 도 자

다 같 이

다 같 이

신선숙 집사

아 동 부

부부성가대

김성국 목사

신경화 집사
(광림교회)

다 같 이

인 도 자

다 같 이

인 도 자

김성국 목사

'이천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설천사향>

*개인과 가정:매일 1/2성경읽기, 가정예배

*교 회:화요새벽기도회

*선 교:결식아동 3배지원, 해외선교지원

<등록규정>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주일예배 1:30 pm

수요예배

화요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7:30 pm(Adria)

교 회 소 식

1. 오늘은 사순절 여섯째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앞둔 고난의 여정 40일간(주일제외) 우리는 절제하는 생활을 하면서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2.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방학중인 자녀들도 하루는 꼭 참석하여 주
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일시> 17일(월)-22일(토) <시간> 6:00am <장소> 교회

3. 고난주간 묵상집

*고난주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성금요예배

*고난주간 금요새벽기도회는 "성금요예배"로 드립니다.

5. 다음주일

다음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특별헌금은 드리지 않습니다.
갈보리교회 모든 헌금은 '십일조 헌금'으로 통일합니다.

6. 부활주일 야외친교

*부활주일예배 후 야외친교를 갖습니다.

장소:Wendetholm Park

7. 교우소식

갈보리교회에 등록하심을 모든 교우들과 함께 기뻐합니다

*김시옥, 장선주, 성도, 명현.

☎521-8055 ☎4/2 Howard Hunter Ave. St. Johns

*변지웅 집사. 한국에서 일 마치시고 지난 12일 귀국.

8.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 도 제 목

1. 아동, 중고등, 청년부 조직과 교사위해

2. 예배당 사용(수요예배, 새벽기도회)

3. 교회사용 교섭위해

9.4월 교회력

2 성찬식, 9 강사초청 설교.

21(금) 성금요 예배

23 부활주일 야외친교

30 '이삭줍기' 주일(메달 마지막 주일)

일자	안내 현금	기 도	teatime봉사
2 한 건, 변지웅	이 선 우	김성국, 김효진	
9 이영권, 김영태	방 성 주	변지웅, 이경석	
16 이선우, 조준정	신 선 숙	이선우, 이영권	
23 지윤수, 김효	지 윤 수	지윤수, 최윤호	
30 변지웅, 신선숙	최 윤 호	한 건, 이상욱	